

<컴패션 뉴스레터 1961년 5-6월호>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에 찾아온 큰 축복과 도전!

<컴패션> 지난 호를 여러분에게 보내 드린 후 두 달 동안 하나님은 저희를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473건의 후원 신청서를 받았고, 현지 선교사 80명을 위하여 발송한 신규 후원 요청도 모두 성사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응답해 주신 모든 소중한 후원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후원자가 생기자마자 많은 새로운 보육원에 필요한 지원을 승인하여 현재 총 97개의 보육원이 되었고, 이는 대구에 짓고 있는 두 개의 새로운 보육원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들 보육원에서 나온 미결연 어린이들에 대한 수백 건의 양육보고서를 새롭게 받게 되었습니다. 3월 27일 기준, 전체 보육원에 8,093명의 어린이가 있고 이들 중 5,705명의 어린이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후원자를 확보하여 각 보육원에 전폭적인 지원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80명의 새로운 현지 선교사들이 지원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명의 선교사가 수십 개의 미전도된 '면'(한국의 마을 단위)과 상당한 규모의 마을들에 대해 보고해 왔습니다. 성경 연구소와 신학교는 복음을 들고 이들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가고자 하는 열성적인 젊은이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많은 장로, 집사, 전도사들이 기꺼이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자 하지만, 그들 가족의 규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역에 관심이 있는 가족, 교회 그룹 및 개인 중에서 2년간 매달 10달러, 15달러 또는 20달러를 어렵지 않게 (물론 희생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소중한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써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아직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마을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후원자들은 현재 162명의 전임 전도사와 22명의 학생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안에 이 숫자가 두 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선교사”를 세우고 후원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매달 보내는 편지와 사역 보고서를 읽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선교사들이 최근 자신의 후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친애하는 스완슨 목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행자에게 길잡이가 필요하듯이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길잡이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구했고, 지난 2년 동안 목사님이 사시는 나라의 한 기독교인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개척 교회로 옮겨가는 이 시점에 목사님께서 저를 2년 더 지원하기로 결정하셨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목사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완슨 목사님.

"스완슨 목사님,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이 개척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제 심장이 뛰는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스완슨 목사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귀한 사역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올림

이만화(Lee Man Hwa)

이 동네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우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마을 사람들의 집에 있는 12개의 우상을 부수었습니다. 12개 가정이 우상 숭배를 끊고 주님께 인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김영희(Kim Yung Hi)

새벽 2시에 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약 8마일(약 13킬로)을 걷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아프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는 일출 1시간 후에 시작되는 새벽기도회에 걸어갑니다!)

장완환(Jang Wan Hwan)

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려 드리는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듣는 것은 정말 은혜롭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술고래였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기도회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계택(Choi Kae Taek)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에는 7명의 새로운 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충실하게 교회에 출석

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소식은 새로 개종한 성도들이 이전에 우상 숭배자였고 불교를 믿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미신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로 살며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권춘필(Kwon Choon Pil)

김 씨, 박 씨, 엄 씨 세 가족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모두 기독교인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난달에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영육 간의 따뜻한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며칠 안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결단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동봉된 노란색 봉투의 "한국 전쟁 고아"를 지우고, "현지 선교사"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베푸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부가 만든 장갑

한국에 있는 고아를 후원하기 위해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엘리노어 클레그(Miss Elinore Clegg, 62세)씨는 일리노이주 마크햄(Markham) 근처의 오크 포레스트(Oak Forest) 양로원에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여러 번 병에 걸려 수술을 받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 위에서 보냅니다.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현재 정규 수입이 없지만, 코바늘로 손수건을 뜨개질하여 오크 포레스트 선물 가게에 판매하여 약간의 수익을 얻습니다. 1958년 12월 고아를 후원하기 시작했을 때 수입이 매우 적고 불규칙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는 동안 그녀는 한 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고아를 위해 다시 한번 수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격려의 쪽지를 항상 동봉합니다.

클레그 씨는 후원 어린이를 매우 사랑합니다. 어린 소녀가 사진을 요청했을 때 그녀에겐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진을 보낼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양로원에 누군가를 방문하려고 온 어떤 사람이 우연히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고, 친절하게도 그녀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클레그 씨는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놓치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아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

시고, 한국의 어린 고아에게 기독교의 사랑 가득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그녀가 처한 상황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진)

새로운 개척 교회

다음은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현지 선교사 중 한 명이 세운 수많은 새로운 교회 중 하나입니다. 사진 가운데가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왼쪽이 피터 강(Peter Kang) 한국 비서, 오른쪽이 스완슨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여러분 자신의 선교사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특별 중요 공지

거의 모든 후원자가 1년 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후원을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후원자가 사진과 양육 기록 등을 당사에 반납하지 않으면, 후원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희에게 통지하실 필요는 없으며, 월간 후원금을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단해야 하는 경우, 서류를 반환해 주셔야 새로운 후원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을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간증문

(1961년 3월 17일 베다니 팜 보육원(Bethany Farm Home)의 박(Pak) 원장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151번 노인철(No In Chul)의 간증을 동봉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저희 주 구세주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을 들었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노인철이고, 고향은 북한 평양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두 형제 및 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잔인하고 지독한 공산주의자들이 저희 재산을 몰수했고, 부모님, 형제, 누이와 함께 남한으로 피난하던 중 그들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고, 제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서울의 알려지지 않은 보육원으로 보내졌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매우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보육원을 도망쳐 나와 매일 음식을 구걸하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왕초(거지들의 우두머리)에게 붙잡혀 강도질과 소매치기를 억지로 익

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일행은 한밤중에 부잣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세 명이었고, 각자 손에 깨진 병을 들고 창문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자고 있던 집주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 저희에게는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굶어 죽거나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강도질에 성공했고, 그 결과 여러 번 더 강도질을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훔치고 내다 팔았지만, 그 과정에서 잡힐만한 의심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강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번은 서울 남대문 부근에서 미국 여성의 핸드백을 훔친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거액의 달러를 발견하고, 시장에서 한국 돈으로 교환한 후 왕초에게 갖다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빵집에서 사탕을 훔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독약을 사서 먹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고,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더 이상 강도나 나쁜 짓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농사꾼이 되려고 시골에 갔지만, 저를 농사꾼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하며 자립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우연히 베다니 팜 보육원(Bethany Farm Home)의 원장님을 만나 저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은 제 진실한 고백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저를 보육원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베다니 팜 보육원(Bethany Farm Home)으로 이사한 후에도 좋은 카메라와 재봉틀을 볼 때면 그것들을 훔쳐 도망치고 싶다는 유혹이 들기도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도망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며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 1월 24일에 있을 부흥회에 참석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형편없는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을 후원하시겠습니까? 소년의 이름으로 요청하십시오.)

학생들을 위한 특별 요청

어떤 분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젊은이들이 일하기 위하여 좋은 훈련을 받도록 돕는 데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많은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특히 한국의 기독교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기독교의 여러 분야에서 섬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매년 점점 더 많은 고아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육원의 원장님들은 어린이들에게 평생을 그리스도께 바칠 것과 주께서 부르시면 기꺼이 풀타임으로 섬기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물리적 존재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교육받을 기회를 전적으로 하나님과 보육원, 그리고 후원자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현재 풀타임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젊은이들은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달러면 성경 학교에 갈 수 있고, 15달러면 신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20~25달러면 좋은 대학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승인했지만, 아직 후원자가 없는 젊은이들입니다.

- 유영학(You Young Hak): 한센병 환자의 아들로, 훌륭한 기독교 대학에 다니기 위하여 10달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에게 등록하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 김정우(Kim Chong Woo): 신학교 진학을 위해 15달러 필요함.
- 곽용기(Kwak Yong Ki): 신학교 진학을 위해 15달러 필요함.
- 강광길(Kang Kwang Gill): 신학교 진학을 위해 15달러 필요함(22세, 척추 장애 있으나, 매우 훌륭한 청년임.)
- 김금식(Kim Kum Shik): 침례교 신학교 진학을 위해 15달러 필요함.
- 하부길(Ha Boo Kil): 대학교 진학을 위해 10달러 필요함.
- 박옥남(Park Ok Nam): 여, 크리스천 오퍼니지 워커즈 칼리지(Christian Orphanage Worker's College) 진학을 위해 15달러 필요함. 저희는 그녀에게 등록하라고 말했으며, 후원자를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 백순애(Pak Soon Yea): 여, 신학교 진학을 위해 15달러 필요함. 그녀의 후원자는 월 7.50달러만 지원 가능함. 현재 학교를 시작한 상태로 나머지 7.50달러가 반드시 필요함.
- 강광길(Kang Kwang Gil): 신학교 진학을 위해 10달러 필요함.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음.
- 이종포(Lee Jong Po): 신학교 진학을 위해 15달러 필요함. 부모가 있지만 등록금 없음.
- 최영새(Choi Yung Sae): 신학교 진학을 위해 15달러 필요함.
- 안기복(An Ki Bok): 신학교 15달러(아버지가 목사로서 순교하심!)
- 박용근(Park Yong Keun): 기독교 대학 진학을 위해 15달러 필요함.

- 김중화(Kim Jong Wha): 신학교 진학을 위해 15달러 필요함. 2학년으로, 도움이 필요함.

저희는 젊은이들로부터 더 많은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정말 합당하고 훌륭한 기독교 청년들입니다. 한국을 복음화하려면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은 미국에서의 비용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훈련을 받으면 외국 선교사보다 더 훌륭하게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사진, 인생 스토리와 간증 등을 받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매달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것이며, 여러분도 그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 사무소에서 편지를 번역합니다.) 혹시 나중에 후원을 계속할 수 없게 되더라도,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사를 선택하고 오늘 편지를 보내십시오!

사진의 청년은 박영근(Park Young Keun, 26세)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2차 세계대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와 여동생은 1945년에 저희 진해 보육원(Chin Hae Orphanage)으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1949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이 훌륭한 젊은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놀라운 간증

- 글: 하우스 오브 호프 보육원(House of Hope), 한정옥(Han Jung Ok)

(불행한 소녀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가 지원하는 보육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목사님이 늘 아껴 주시는 하우스 오브 호프(House of Hope) 보육원 협의회 회장인 스무 살 한정옥(Han Jung Ok)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죄를 편지로 쓰려고 하니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희망협의회(Council of Hope) 회장으로서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편지를 씁니다. 원장님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의 편지에서 저희를 돕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결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또 다른 소원은 친부모님과 헤어진 지 오래되어 부모님이 너무 그리운 마음에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다면,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 편지가 목사님의 사역을 너무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신앙고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신앙고백을 쓰면서 그분의 자비와 값진 사랑, 그리고 구원을 생각하면 떨어지는 눈물을 어떻게 참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죄를 하얗게 씻어 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농부의 딸로 경북 안개(Ankae)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오빠와 여동생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저의 고향이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

쟁으로 인해 갑자기 전쟁터로 변해버렸고, 피난처를 찾기 위해 당장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영천(Yung Chun)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¹한국근무단(Korean Service Corps)에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저희를 남겨두고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제 여동생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곧이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오빠는 아버지가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다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친척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살던 친척들은 저희를 너무나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립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년 전 대구에 왔지만, 기댈 곳도 없었고, 이전과 같은 문제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함께 머물 수 있는 숙소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식비와 숙박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할 때야 비로소 그곳이 창녀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타락의 길로 접어든 시작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곳에 머무를수록 빚은 더 불어났습니다. 제가 겪은 일과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제 눈물이 다 마를 지경이었고, 부랑자들이 집을 지키고 있어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하고 두려워서 그곳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바른길로 인도하고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지만, 혼자 있는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우스 오브 호프 보육원(House of Hope)의 전도사님을 만났고, 전도사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줄로만 알았는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며, 집 없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에게 바른길을 보여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대화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적으로 회복된 저는 그 악마의 집에서 하우스 오브 호프 보육원(House of Hope)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기독교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보육원 밖의 시냇가에서 빨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옷들을 세탁물을 넣어둔 가방에 숨기고 나왔습니다. 개울에 도착하자 저는 낡은 옷과 신발을 개울

¹한국근무단(Korean Service Corps, KSC) 또는 미8군 지원단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_%EA%B7%BC%EB%AC%B4%EB%8B%A8).

에 던져 버린 후 숨겨온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다시 잡힐까 봐 한참을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5분도 채 되지 않아, 하우스 오브 호프 보육원 (House of Hope) 앞에서 원장님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보육원을 지나치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전도사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엔 매우 놀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도사님에게서 들은 첫 번째 말은 '인내하라'였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 보육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곳이 제가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말하는 모든 말을 따랐고 그들이 가르쳐 준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지나간 생각에 머리가 흔들리듯 혼란스러웠고, 저의 약점으로 인해 또다시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2층 기도실에서 쉬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죄로 인해 무거웠습니다.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찬송가의 모든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일과가 되었고, 보육원에 머물며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칭찬해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시면서 제가 하는 일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원장님으로부터 모범근로상을 받았고, 지난 협의회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저는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놀라운 성과는, 이 보육원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 글자도 쓸 줄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그분의 신실한 종이 되어 죄악 된 세상에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예전에 겪었던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부족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되도록 평생 충성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모든 보육원에는 자체 이사회가 있습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가 지원하는 모든 보육원에는 자체 기독교 이사회가 있습니다. 아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곳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산(11,000,000환 - 약 8,500달러)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텃밭 매입, 건물 보수 등을 통해 평가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몇 달 내로 모두 이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전체 재산의 소유권과 향후 사용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육원이 어린이 한 명당 매월 약 67센트의 정부 보조(현금과 소량의 곡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کمپەیشن 가족 소식

친애하는 스완슨 목사님께,

18번과 39번의 후원 취소 통보를 받고는 이들 두 어린이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낙담했고,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39번은 중학교 1학년으로 매우 영리하며 미전도 지역에서 선구적인 사역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들이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이들의 소중한 행복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후원자님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자주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분들이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명한 복이 항상 목사님의 수고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블루 버드 보육원(Blue Bird Orphanage), 김인숙 원장(Mrs. Kim In Sook)

(참고: 후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린이가 나중에 현지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육군 대위의 글

친애하는 스완슨 목사님께,

저희는 최근에 한국에 도착한 새로운 부대이며, 목사님께서 지원하시는 보육원 대표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도움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있으며, 매우 친절합니다. 그들에 대한 목사님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 포병사령부, 레온 T. 워드(Leon T. Ward) 대위